

TALK²
[특투]

CSG

CSG Magazine

Vol.09

2025년 4월호

TALK²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ontents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6

목적이 걸음을 만든다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특뷰 [TALK² + Interview] 9

기획 창신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다

김소영 GM

One in a Million 15

신발에 인생을 담다

CEO 두줄 노트 18

Agility. Adaptability. Alignment.

Special Page 22

Victory Lap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25

Chemical Engineering

CSG News Pick (#창_뉴_픽) 32

#DE&I #취업멘토링 #Offshore

Trend Catcher 36

News Clipping 75호

CSG Campus 소개 38

함께 미래를 만드는 창신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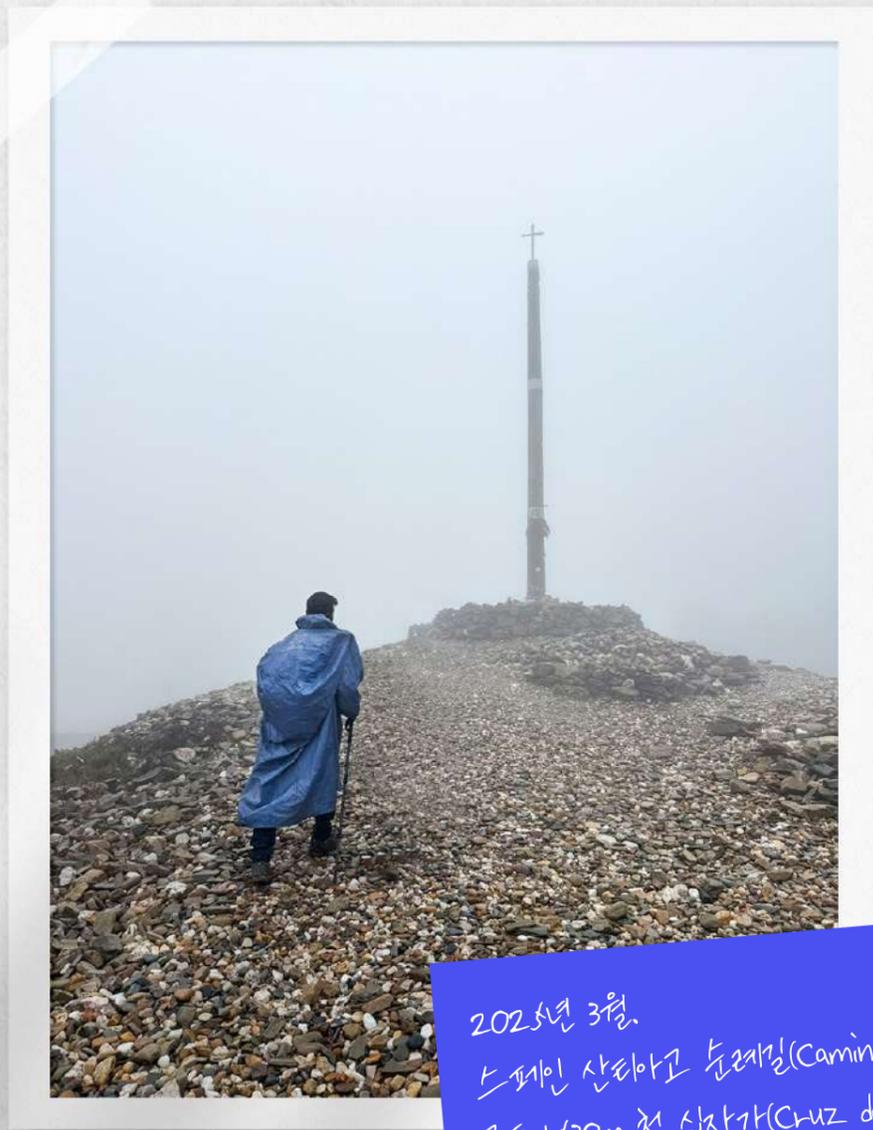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 한 장에 담다



2025년 3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
고도 1,530m 철 십자가(Cruz de Ferro)를
향해 안개 낀 오르막길을 걷고 또 걸었다.
많은 이들이 힘들다 말하는 이 길을
묵묵히 걸었다.
목적이 선명한 걸음은 흔들리지 않기에.

목적이 분명하면
그 길은 더 이상 고비가 아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 답이 선명해지는 순간, 방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몸이라도
분명한 목적을 향한 의지 앞에선 무릎을 꿇는다.

목적을 잃지 않았던 창신의 지난 43년,
앞으로의 걸음 또한, 그 목적이 이끌 것이다.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The AceMaker

The AceMaker | 특부

특부 [TALK²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획 창신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다

창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든다



김소영 GM

JJ와 RJ의 강점을 이어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어갈 것

기술 혁신과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다져온 JJ, 효율적인 생산 운영과 비용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RJ.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두 공장이 단일 코드 운영을 기반으로 **각자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번 변화는 창신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실현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김소영 GM**은 두 공장의 고유한 가치를 유연하게 연결하고, 변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실행력으로, 조직의 중심에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는 지금 창신 인도네시아의 변화의 흐름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가고 있다.

JJ·RJ

변화의 순간마다
도약의 가능성을 열다



창신 인도네시아의 내일을 설계하다

김소영 GM

창신에서의 30여 년, 그 시간 동안 김소영 GM은 늘 현장에 있었다. VJ에서 RJ까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직을 이끌었고 변화의 순간마다 도약의 가능성을 열었다.

2025년 4월, 단일 코드로 새롭게 출발한 인도네시아에서 그는 두 공장이 만들어낼 차원이 다른 시너지를 현실로 옮겨가고 있다. JJ 김소영 GM으로 나선 새로운 여정과 그가 그리는 창신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만나본다.

Q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해왔나

1992년 4월 생산계획 업무로 창신과 첫 인연을 맺었고, 1996년 베트남에서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생산관리와 생산지원 업무를 맡아 약 25년간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사람과 조직을 이끄는 역량을 키워왔다.

2023년 RJ GM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2025년 4월부터는 인도네시아 통합 GM으로서 역할을 확장하게 됐다. 처음부터 이 자리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묵묵하게 한 걸음씩 꾸준히 걷다 보니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됐다.

Q 통합 GM으로의 새로운 시작, 어떻게 준비했나

무엇보다 조직과 생산의 안정화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 수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현지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도 차이가 있다. JJ와 RJ는 같은 나라에 위치해 있지만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객이 기대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JJ는 기술 혁신과 R&D 역량, RJ는 비용 경쟁력과 효율성이라는 서로 다른 강점이 있다. 앞으로 두 공장이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번 변화는 단순한 통합이 아닌, 창신 인도네시아가 그룹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뜨거운 사명감으로 가슴이 뛰고 있다.



(왼쪽부터) JJ HR Susilo 팀장, 김소영 GM, RSM Ida Nurhaida 팀장, 서영석 Vice GM, 최민호 EMD, 재무팀 Suwardiko 팀장, 김윤근 생산지원총괄, MEC Oktavi Irwan Sulistyio 팀장



“막중한 책임과
뜨거운 사명감으로 가슴 뛰어”



지난 4월 8일 열린 JJ 김소영 GM 취임식

Q JJ와 RJ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통합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네 가지 핵심 운영 항목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는 안전이다.** 모든 생산 활동의 기본은 안전이며, 이는 직원들의 복지와 생산성에 직결된다. **둘째는 품질이다.** 우리가 만드는 신발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우리가 일하는 이유이자 고객과의 약속이다. 품질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다.

셋째는 LEAN 원칙에 기반해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자원 소모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은 **C2.0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전체 운영 효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오늘 일은
오늘 반드시
끝낸다



Q 변화 속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 생산 현장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매일 새벽 6시 전에 출근해 전날의 상황을 꼼꼼히 복기하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노트에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뿐 아니라 차선까지 준비하는 일은 이제 나의 일하는 기준이 되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시작한 메모는, 지금은 생각을 정리하고 실행을 준비하는 루틴이자,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기억보다 기록이 강력하다는 걸 깨달은 이후, 그 메모들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었다.



“직원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으로 이야기 나누려 노력”

Q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나

공식적인 회의보다 일상에서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요즘 어떠세요” 같은 가벼운 안부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시그널들을 발견하게 된다. 각 그룹의 리더들과는 자주 얼굴을 맞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을 담아 소통하려 노력한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 한 켠,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짧은 순간. 그 시간이 오히려 깊은 신뢰를 만들어 낼 때가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그 안에서 사람들과 마주하여 함께 일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된다. 내게 ‘일’이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배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얻는 배움과 성장의 경험에 의미를 둔다.

Q 해외에서 근무하며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다면

‘오늘 일은 오늘 반드시 끝낸다.’ 예측이 어려운 생산 현장에서 그날의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매일 1시간 이상 러닝을 하며 기초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체력 관리를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는 ‘정신적 정비’의 시간이기도 하다.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는 그 시간이, 책상 앞에 머무는 것보다 더 명확한 답을 줄 때도 많다. 결국, 일의 밀도를 높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몸과 마음의 관리가 아닐까.

Q 끝으로 주재원을 비롯한 창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의 변화는, 창신 인도네시아가 함께 도약하기 위한 시작이다. JJ와 RJ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 변화는 단순한 통합이나 효율 개선을 넘어, 우리가 함께 창신의 다음 단계를 설계해가는 과정이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진짜 ‘World Class Manufacturer’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길 끝에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생성형 AI, ChatGPT로 제작한 이미지

백만 명 중 하나

창신인만의 특별한 이야기

ONE *maximize our possibility* IN A MILLION

숨겨진 재능과 독창적인 감각으로 반짝이는 창신인들의
다채로운 삶과 열정을 공유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창신인만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조명합니다.

백만 명 중 하나, 내 주변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창신인을 알려주세요!

하단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폼으로 연결됩니다.

"테니스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3연패"

"힙합부터 왁킹까지, 10년차 스트릿 댄서"

"다이빙 자격증만 5개, 프리다이버"

제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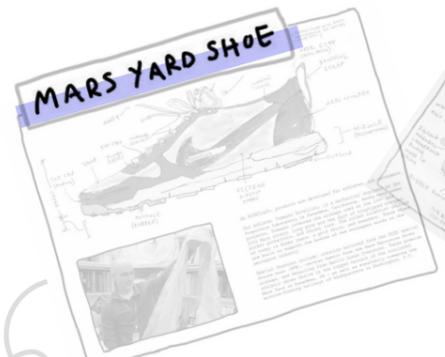
EP.02

신발에 인생을 담다

: 수집을 넘어,
영감의 원천이 되다

Men's Sportswear 김도운님

NIKE CRAFT
"SPACESHIPS"



MEN'S SPORTSWEAR
DOMINIC



Men's Sportswear TD 김도운의 일상에는 언제나 신발이 있다. 업무 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단순히 좋아서 모으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신발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고, 해부하고,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렇게 200컬레가 넘는 신발이 그의 공간을 채우게 됐고, 신발은 어느새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의 감각과 철학, 삶의 방식이 되었다. 조던 시리즈를 손에 넣기 위해 매장 앞에서 밤을 새우고, 하나의 모델을 색상별로 수집해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이제 그에게겐 일상. TD 김도운은 말한다.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자, 영감이며, 삶 그 자체라고.

신발의 개수보다, 그 안에 쌓인 시간과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TD 김도운. One in a Million 두 번째 주인공인, 그가 직접 전하는, 신발에 담긴 인생의 취향과 철학을 들어보자.

삶의 일부에서, 어느새 전부가 된 신발

“신발은 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일의 영감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나다운’ 방식”

신발과 처음 연결된 순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년 동안 부산시 대표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했다. 쇼트트랙은 ‘발’이 퍼포먼스에 직결되는 스포츠다. 정교한 움직임과 빠른 전환을 위해선 발에 꼭 맞는 스케이트화가 필수였다. 하지만 그 시절엔 지금처럼 몰딩 장비가 흔하지 않았다. 맞춤 스케이트화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고, 대부분은 기성 제품을 ‘내 발에 맞게’ 만들어가며 신어야 했다. 나는 스케이트화 안쪽에 본드를 바르고, 발에 단단히 묶은 채 며칠씩 신었다. 그러면 신발이 점차 내 발 모양대로 굳어 가며 착용감이 나아졌다. 지금 생각하면 꽤 투박한 방식이지만, 그때 그게 최선이었다. 그 경험을 통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먼저 배울 수 있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어쩌면 지금의 나를 만든 ‘첫 번째 신발’은, 그 시절의 스케이트화였고, 그 순간이 지금까지 이어진 신발에 대한 애정의 출발점이었다.

**From Collector to Developer:
Dominic's Life with Shoes!**



‘오픈런’을 위해선, 매장 앞 이틀 밤샘은 기본! 열정 가득하던 수집가 시절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든대, 이게 바로 ‘덕업일차’의 정석

200컬레, 하나하나 애정이 깃든

지금까지 모은 신발은 200컬레가 넘는다. 그중 80% 이상은 나이키 제품이고, 나머지는 뉴발란스, 호카, 미즈노 등 다양한 브랜드가 포함돼 있다.

신발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디자인, 그중에서도 컬러 조합이다. 스포츠 레드, 바시티 레드, 유니버시티 레드처럼 나이키 특유의 정제된 레드 계열에 유독 끌린다. 강렬하지만 과하지 않고, 선명하면서도 어딘가 절제된 그 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Mars Yard Shoe 2.0**. 스우시의 스포츠 레드와 어퍼의 브라운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정말 매력적이다. 디자인, 컬러, 실루엣까지, 딱 ‘내 스타일’이라는 확신이 드는 몇 안 되는 모델 중 하나다.



Sports Red
Mars Yard 2.0

University Red
Dunk Low

Varsity Red
Air Jordan 1



“나를 드러내는
또 다른 나!”

신어야 제맛

신발은 ‘발을 넣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새 신발이라고 해서 진열장에 고이 모셔 두는 법은 없다. 직접 신고, 걷고, 느끼고, 디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경험하는 것, 그 일련의 과정이 수집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리셀가로 유명한 마스야드도 예외는 없다. 그 디자이너 톰 삭스(Tom Sachs)도 “신발을 직접 신지 않고 전시만 하는 것은 최악이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신발은 신었을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사람들의 신발이다. 일종의 직업병 같기도 하고, 취미 같기도 한 이 습관은, 신발 덕후들 사이에선 꽤 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린, 무조건 서로를 알아본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신발 중심의 스타일링. 대부분은 옷을 고른 뒤 신발을 매치하지만, 신발 덕후들은 다르다. 신발이 먼저다. 어떤 신발을 신을지 정한 뒤, 그에 맞춰 상하의를 고른다. 패션의 시작과 완성이 결국 ‘신발’인 셈. 그래서일까. 누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는 자동으로 눈에 들어온다. 그 신발에 들인 애정과 시간, 철학까지도.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니까.

영감의 원천이 되다

“신발, 안 질려?” 가끔 듣는 질문이지만, 망설이지 않고 답한다. “한 번도 질린 적 없어.” 신발은 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개발자로서의 영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새로 산 신발은 조심스럽게 뜯어 디테일을 살펴보고, 꼭 한 번은 신어 본다.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하며 얻은 인사이트는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일이 막힐 때면 그 수백 컬레의 실루엣과 디테일 중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렇게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개발에 반영되어, 눈앞에 실물이 나왔을 때 느끼는 짜릿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다. 신발은 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일의 영감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나다운’ 방식이다.

신발에 담긴 이야기를 읽는

소비자가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신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개발자로서 품고 있는 목표 중 하나다. 몇 컬레를 모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다만 어떤 생각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씩 모으다 보니, 어느새 200컬레가 넘은 것. 신발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믿는다. 창신인이라면, 신발 수집의 세계에 살짝 발을 들여보길 권하고 싶다. 일도, 시선도,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전원공격-전원수비, 동네축구가 되지 않기 위한 3A 전략

세계적인 석학 하우리(Dr. Hau L. Lee) 스탠퍼드대학교 종신교수는 1970년대 네덜란드 축구팀의 **'토틸 사커(Total Soccer)**' 전략을 회사의 공급망 관리에 비유하여, **공격과 수비의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움직이는 초민첩(Ultra-Agile)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토틸 사커 전략은 모든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유기적으로 흐름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기업도 **전원공격, 전원수비의 자세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전원공격-전원수비 전략이 '동네축구'로 전략하지 않기 위해서는 **창신만의 3A 전략**이 필요하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한 Agility 제고, 전방위 AI 도입을 통한 Adaptability 향상,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 목표에 대한 Alignment**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생산은 물론 HR, 재무, 관리, 지원 부서 모두가 그라운드 위의 플레이어로 뛰어야 한다.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 전체가 하나로 협력**하고, 언제든지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 Li Chen, Hau L. Lee, and Shiqing Yao, "Ultra-Fresh Strategies with Ultra-Agile Supply Chains," *Management and Business Review*, Vol. 4, Issue 3&4 (Summer and Fall 2024).

사직야구장에서 '창신'을 찾아라!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인 사직야구장에서
'창신'을 찾아보세요.

집관도 OK!

외야 펜스



찰칵- ✨

집에서 응원도 OK!

LED 패널



Special Event

자세한 내용은 CSG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Instagram icon changshin_official

Victory Lap

in Shanghai Fashion Week

지난 4월 1일, 2025 F/W 상하이 패션 위크의 마지막 날. 나이키는 웨스트 번드 아트센터(West Bund Art Center)에서 브랜드 최초의 런웨이 쇼 'Victory Lap'을 선보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러닝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무대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에너지와 성취를 기리는 퍼포먼스로, 스포츠와 패션의 경계를 허문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트랙을 모티브로 한 무대 연출이 돋보였다. 런웨이 바닥과 배경에 육상 트랙을 형상화한 라인을 더하고,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에너지를 구현했다. LED 그래픽과 공간을 감싸는 사운드는 마치 경기와 쇼가 겹쳐진 듯한 감각과 함께, 스포츠의 긴장감과 승리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以汗水打爆出耀眼的光,
他一登场,
即主宰全场,
不必追赶风格,
却一直主导风潮,
欢迎来到

NIKE Women 呈现 Victory Lap—领跑之秀,
(领跑赛场的传奇女性运动员为灵感, 通过先锋视野
再塑造于跑道的全新女性风格潮流)

RACE TIME
2025.04.01

2025 **Victory Lap** 领跑之秀

Location
West Bund Art Center 西岸艺术中心
No. 35 Fenyang Road, Xuhui District, Shanghai



이번 쇼의 핵심에는 창신이 있었다. 창신이 개발한 'Air Max Muse', 'Air Superfly', 'Alphafly 3'를 포함한 6종의 제품은 모두 이 무대를 위해 특별히 커스터마이징된 모델로, 단 4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본사와 VJ의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되었다. 새로운 반사 소재부터 신발끈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다듬어진 이들 제품은, 쇼가 지닌 메시지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기능과 스타일, 스토리가 하나로 연결된 이번 쇼는 단순한 패션 이벤트를 넘어, 창신이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과 감각을 동시에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 + Future

Manufacturing | MX Designer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영역까지 파고들어, 신발의 퍼포먼스를 설계하는 Chemical Engineer(이하 CE). CE는 **Dimensions CE**와 **Functional CE & LA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이다. 이들은 단순한 '본딩 전문가'가 아니다. 본딩은 단순히 재료를 단단히 '붙이는' 작업이 아닌, **서로 다른 자재가 하나의 신발로 완성되기 위한 정교한 접합 설계의 핵심 기술이며, CE는 이 복합적 과정을 주도하는 설계자다.** 신발 구조부터 원료 배합, 공정 조건까지 소비자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다각도에서 조망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한 쪽의 신발이 완성되기까지 수십 번의 테스트와 수치 검증, 반복되는 실험과 치열한 분석. **데이터와 디테일로 무장한 이들의 집요함은 창신이 지키고자 하는 품질에 대한 태도이자 열정이며, 혁신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술력을 완성하는 신발에 대한 애정

“내가 만족하는 신발이 될 때까지, 1만 보는 기본”



#점검할게 #이만큼
#NeverStop 🔥



Dimensions CE **엄예연**님 인터뷰

해외여행 중에도 매장을 들러 신발을 살피는 게 일상이 된,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전문성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성장형 엔지니어'. 신발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CE 엄예연을 만나 그 열정의 이유를 들었다.

Q Dimensions CE 소개 좀 해달라

Dimensions CE는 신발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표적으로 접착 불량이나 자재 변색 같은 이슈들이 있다. 또한 신규 자재와 기술이 생산 공정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본딩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신발 디자인 이면의 기능과 신뢰를 함께 책임지며, 제품이 문제없이 출시되도록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기술 설계자라고 할 수 있다.

Q 외부 제작 미드솔이 전량 적용된 첫 모델을 맡았다고. 힘든 점은 없었나

처음엔 쉬울 줄 알았다. 외부 업체에서 100% 완성된 미드솔이 납품되기에, 우리가 자재를 직접 투입하거나 작업 조건을 조정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입고부터 급변전. 경도(단단함), 비중(무게)과 같은 품질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고 외관 상태도 들쭉날쭉했다. 처음 입고 된 100족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 보니 불량률이 70%를 넘었고, 유형도 다양했다.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지만, 해외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예상보다 더 많은 공정 조정이 필요했다. 3년간의 실무 경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선배들의 조언과 팀원들의 협업 덕분에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었다. 하루 10,000보씩 현장을 오가며 불량 자재를 점검했고, 테스트와 조정을 수차례 반복했다. 걸음이 쌓일수록 불량률은 점차 줄고, 결국 안정적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팀원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으며,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었다.

Q 4년 차인데, 신발이 더 좋아진다고

신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애정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특히 여행을 가면 신발 매장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석처럼 이끌려 들어간다. 작년 상하이에서도 그랬다. 그냥 구경만 하자고 들어간 매장에서, 어느새 육상화를 들고 진지하게 접착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다. 그만큼 신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신발 이야기를 자주 한다. 예를 들면, 카본 소재는 반발력이 좋아 러닝의 기록 단축에 적합하고 '쭈덱스폼' 소재는 쿠션감이 뛰어나 발에 무리가 덜하다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든 신발까지 추천하게 돼, 실제로 설명을 듣고 신발을 산 친구들만 수십 명이다. “영업팀으로 옮긴 거 아니냐”는 농담을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구나’하고 느낀다.



Q 팀원들에게 한마디

나에게는 '영양제' 같은 사람들이다. 지치거나 막막할 때마다 힘을 주는 존재다. 함께할수록 안정감이 생기고, 덕분에 더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커진다. 그동안 받아온 애정과 배려를 이제는 후배들에게 되돌려주며, 선후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

완성도를 높이는 힘 재료부터 끈기 있게

“보이지 않는 작은 소재가, 품질의 수준을 높인다”

“재료의 역할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새로운 도전
#부기선배 #유튜브촬영



Functional CE 이광민님 인터뷰

끈기와 실행력을 무기로,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가는 엔지니어. 새로운 영역에도 과감히 뛰어들며 스스로의 한계를 넓혀가는 CE 이광민. 그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Q Functional CE는 어떤 일을 하나

신발 개발에는 다양한 소재와 화학 물질이 사용된다. Functional CE는 이 재료들이 공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사전에 기능을 점검하고 실제 생산 환경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새롭게 도입된 소재가 접착이나 발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품질 유지를 위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직접 테스트하고, 필요 시 조건을 조정해 개선 방향을 찾는다. 쉽게 말해, 신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문제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그 가능성과 조건을 꼼꼼히 설계하는 팀이다.

Q Functional CE로 전환하게 된 계기

신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다 보니, 재료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특성과 반응을 더 깊이 이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자재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다뤄야 더 안정적일까?’ 하는 궁금증이 쌓이면서 직접 테스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커졌고, 그렇게 Functional CE로 직무를 전환하게 됐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 기존 Dimensions CE에서의 4년의 경험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 이전에는 완성된 미드솔의 이름만 알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그 안을 구성하는 화학 원료의 특성과 역할까지 이해해야 했다. 처음엔 생소한 용어나 개념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직접 부딪히고 익히는 과정을 거치며 점차 익숙함을 쌓아갔다. 지금은 내가 테스트한 자재가 생산에 적용되고, 최종 제품으로 완성될 때마다 보람과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몰랐던 영역을 하나씩 채워가는 그 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

Q Functional CE로서 강렬한 신고식을 치렀다고

Functional CE 1년 차인 지난해, 미드솔 발포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제(키커)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기존보다 발포 성능은 높이면서도, 인체에 해로운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 본사에서 초기 테스트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JJ 생산 현장에선 같은 조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당황할 틈도 없이 배합을 조정하고 테스트를 반복하는 등 현장을 직접 누비며 확인을 거듭했지만 JJ 출장 중에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입맛도 잃었고, 달라진 환경 때문에 열흘 만에 체중이 5kg가 줄어든 정도로 열정을 쏟았다. 출장 복귀 후에는 JJ CE팀과 긴밀히 협업해 배합을 1g 단위까지 조정했고, 조건을 세밀하게 다듬은 끝에 최종 생산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테스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재료를 이해하는 깊이에서 Functional CE의 본질을 마주할 수 있었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CKP!

Q 올해 목표가 있다면

지난해는 직무 전환, 해외 출장, ‘부기’ 촬영까지 도전의 연속이었다. 버겁게 느껴진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확실히 성장할 수 있었다. 올해 가장 집중하고 싶은 목표는 ‘영어’다. 출장을 통해 영어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최근에는 고객사 CE 리더 야시 이치카와(Yashi Ichikawa) 방문에 맞춰, 영어 PT를 직접 준비해 발표까지 마쳤다. 앞으로도 팀을 대표해 영어로 발표할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고 해보려 한다.

정확한 결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해보자”



Chemical Engineering Director | 강민승

“퍼포먼스의 완성은
언제나 Chemical Engineer의
열정에서 시작된다.”



LAB 유태규님 인터뷰

100여 가지의 실험을 직접 수행하며, 수치 너머의 원인을 찾아내는 감각을 키워온 탐구형 엔지니어. 팀에 대한 애정으로 생애 첫 영상 제작까지 자처한 그에게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물었다

Q LAB은 어떤 업무를 하나

개발 중인 신발이나 새로운 소재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실험한다.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신발을 반복적으로 굽히거나, 온도나 습도 변화 등 다양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구현하고, 그 안에서 신발이나 자재가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수치로 점검한다. 또한 기존 장비로 한계가 있는 테스트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거나 보조 도구를 제작해 개선하는 일도 담당한다. 'LAB'이라는 이름처럼 신발과 자재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연구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다.

Q 100여 개의 테스트를 한다고. 핵심 업무는

신발과 자재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리 실험해 보는 것이다. 100여 가지 테스트 항목이 있고, 그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단순히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다. 같은 테스트라도 신발 구조, 자재 특성, 장비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찢어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방향으로 찢어졌을까', '동일 자재인데 이 구조에서는 왜 더 약할까'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해석하는 시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숫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안의 이유를 끝까지 찾아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와 정확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Q 기억에 남는 테스트

신발을 반복적으로 구부려 내구성을 확인하는 플렉스 (Flex) 테스트를 새롭게 설계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보통 걸을 때, 신발의 앞부분이 자주 접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스트 장비는 앞쪽 부위만 점검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테스트한 모델은 뒤꿈치 쪽의 굽힘이 특히 많은 구조였고, 기존 장비로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테스트를 생략할 수는 없는 법. '어떻게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팀원들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책을 고민했다. 신발을 거꾸로 고정해 보기도 하고, 기존 장비에 보조 도구를 결합하는 방법도 시도했다. 결국 다른 종류의 테스트 장비에 직접 제작한 보조 장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테스트 방법을 만들어냈다. 유관 부서와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구조 설계, 제작, 반복 실험을 거치며 완성도를 높였다. 현재, 이 테스트 방식은 공식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기존에 없던 테스트 방법을 만들어낸 경험이었어서 더 의미 있게 남아 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LAB이 어떤 테스트를 수행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00여 가지 테스트 항목을 직접 영상화해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3년 안에 전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해외 법인에도 공유할 수 있는 테스트 기준 자료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영상을 통해 본사의 정확한 기준을 시각적으로 공유해, 테스트 과정의 휴먼 에러로 인한 변수 폭을 줄이는 것 역시 주요 목적이다.

영상편집은 처음이지만,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고해 하나씩 배우며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3년 뒤, 이 영상이 창신 전체의 테스트 기준을 표준화하고,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결과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DE&I

세계 여성의 날, 하나 된 창신

International Women's Day

Diversity
Equity
Inclusion

축하도 받고 추억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Accelerate Action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창신 본사와 해외 법인에서는 'Accelerate Action(더 빠르게 행동하라)'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본사에서는 400여 명의 임직원이 '한 손들기' 포즈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기념 메시지를 담은 빵이 제공돼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나눴다. 카드뉴스와 퀴즈 이벤트도 그룹웨어에 게시되어,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해외 법인도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했다. VJ는 여성 직원들에게 빵과 식료품을 나누고, JJ는 SNS 포토 챌린지를 통해 500여 명이 참여했다. QD는 건강검진과 줄다리기 이벤트로 활기를 더했다. 창신은 앞으로도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업멘토링

사하구 취업 멘토링, 창신에 쏠린 관심



이강란 CTO가 참가자들에게 창신을 소개하고 있다



실무 경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SA팀 최송아 멘토

3월 22일, 부산 사하구청이 주최한 '2025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 창신이 참여했다. HRM팀과 SA팀의 최송아가 멘토로 나서 창신의 인재상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 경력 인정 여부 등 실질적인 채용 조건은 물론, 창신의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까지 폭넓게 쏟아냈고, 일부는 세션 대부분을 창신에 할애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강란 CTO는 "자신의 강점을 찾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며 실질적인 조언을 건넸다. HRM팀 이병하 채용 담당자는 "취업 준비생들의 기대와 궁금증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하반기 대학 채용 박람회 포함해 더 많은 행사에서 창신을 알리고, 우수 인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Offshore

VJ 30년 근무 현지 직원 13명, 본사 방문

VJ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창립 초기부터 함께해 온 현지 직원 13명과 그 가족들이 지난 7일 본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94년 10월부터 8개월간, 공장 설립을 준비하며 한국 본사에서 신발 제조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약 30년 만에 다시 본사를 찾은 자리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CDC 김병준 GM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새롭게 단장한 MX Center와 SAHA동을 둘러보며 샘플 제작 공정과 현재 개발 중인 모델을 직접 살펴보았다. Workshop에서는 최신 개발 트렌드와 각 공정별 기술 변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크게 달라진 본사 환경과 기술 수준을 체감하며 진심 어린 소감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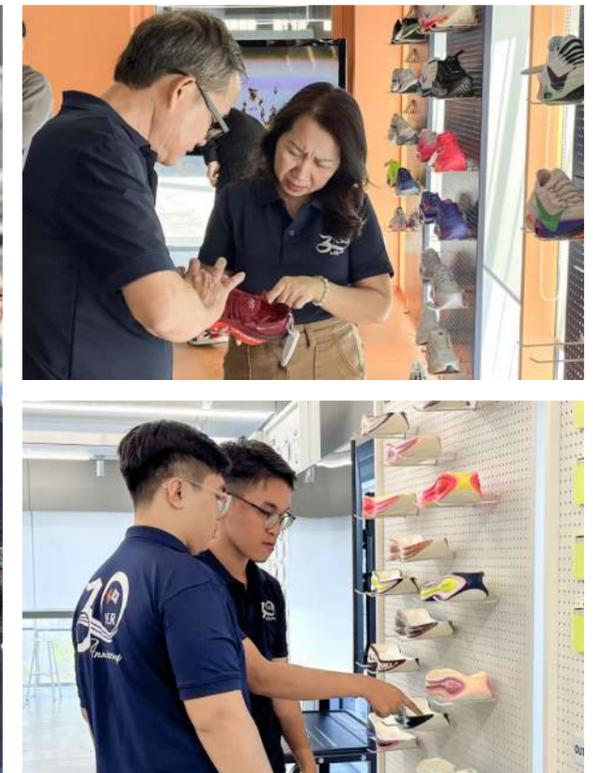
SAHA동, Expression Lab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VJ 직원들과 가족들

VJ 노조위원장 당 뚜언 뚜(Đặng Tuấn Tu)는 “30년 전,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시 이곳을 찾게 되어 감격스럽고, 창신의 발전을 직접 확인하며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IE팀 응우옌 티 홍 리엔(Nguyễn Thị Hồng Lien)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과거에 연수를 받았던 곳을 아이들과 함께 다시 찾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VJ는 1994년 설립 이후 창신의 첫 해외법인이자 핵심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오는 6월 28일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밝은 표정으로 Workshop 현장을 둘러보는 VJ 직원들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5]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March 2025

작성 |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NIKE

신규 브랜드 'NIKE SKIMS' 출시 발표... 올봄 선공개

- 미국 유명 모델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의 브랜드 'SKIMS'와의 협업 통해 신규 여성복 브랜드 'NIKE SKIMS' 출시 예정
- 여성용 트레이닝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 여성 제품군에 주력,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은 제품을 선보일 계획
- 미국 내 일부 소매점과 온라인에서 올봄 선공개 예정이며, 이후 2026년 전 세계 출시 목표
- CEO 엘리엇 힐(Elliott Hill), "이번 협업은 여성용품 분야에서의 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

한국경제

2025 회계연도 3분기 주당순이익 시장 전망치 2배 기록

- 2025 회계연도 3분기 (2024년 12월 ~ 2025년 2월) 주당순이익* 0.54달러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였던 0.29달러의 2배 달성
- 매출액 11억 7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7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시장 전망치는 상회
- CEO 엘리엇 힐(Elliott Hill), "스포츠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는 '윈 나우(Win Now)' 전략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밝힘
- CFO 매튜 프렌드(Matthew Friend) "NIKE의 회복 노력이 지속되는 동안 단기적으로는 매출과 이익에 희생이 따를 것이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스포츠 선수들에게 새로운 제품 혁신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

*주당순이익: 주식 1주당 기업이 창출한 순이익의 양

연합인포맥스

경영사 / 사업

New Balance, 2027년 한국법인 설립 예고, '한국 시장 집중할 것'

- 2027년 1월 1일부터 한국 지사 설립해 직접 진출 예정
- 16년간 한국 독점 운영권 가진 이랜드월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은 2030년까지 연장
- 그간 구축해 온 성장성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자체적인 영업 및 유통으로 한국 시장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
- CEO 조 프레스턴(Joe Preston) "한국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소통할 것"이며, "이랜드와는 핵심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함께할 계획"

동아일보

ADIDAS, 매출액 전년 대비 11% 증가, 호실적 기록

- 3월 진행된 실적 발표서 2024년 전체 매출 236억 8300만 유로(약 37조 5849 억원)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1% 증가했음을 밝힘
- 악성 재고로 남아있던 칸예 웨스트(Kanye West)와의 협업 브랜드 '이지(Yeezy)' 제품을 전량 소진한 것이 주요
- CEO 뷔욀 굴든(Bjorn Gulden)은 현재 상승세에 힘입어 삼바, 가젤 등 클래식 라인에 집중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명인들과의 협업 진행을 예고



Yeezy Boost 350 V2

매거진한경

CSG 캠퍼스

창신인들이 서로 협업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일궈가는 공간

① MX Center

Manufacturing eXperience

제조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공간

제조와 관련된 모든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MX Designer들이 모여, 창신의 업의 본질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② NXT Center

Next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 공간

미래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공간입니다.

③ ACE Center

Acemaker

모두가 에이스가 되는 공간

창신의 브랜드 에센스 'acemaker'를 바탕으로, 창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에이스가 되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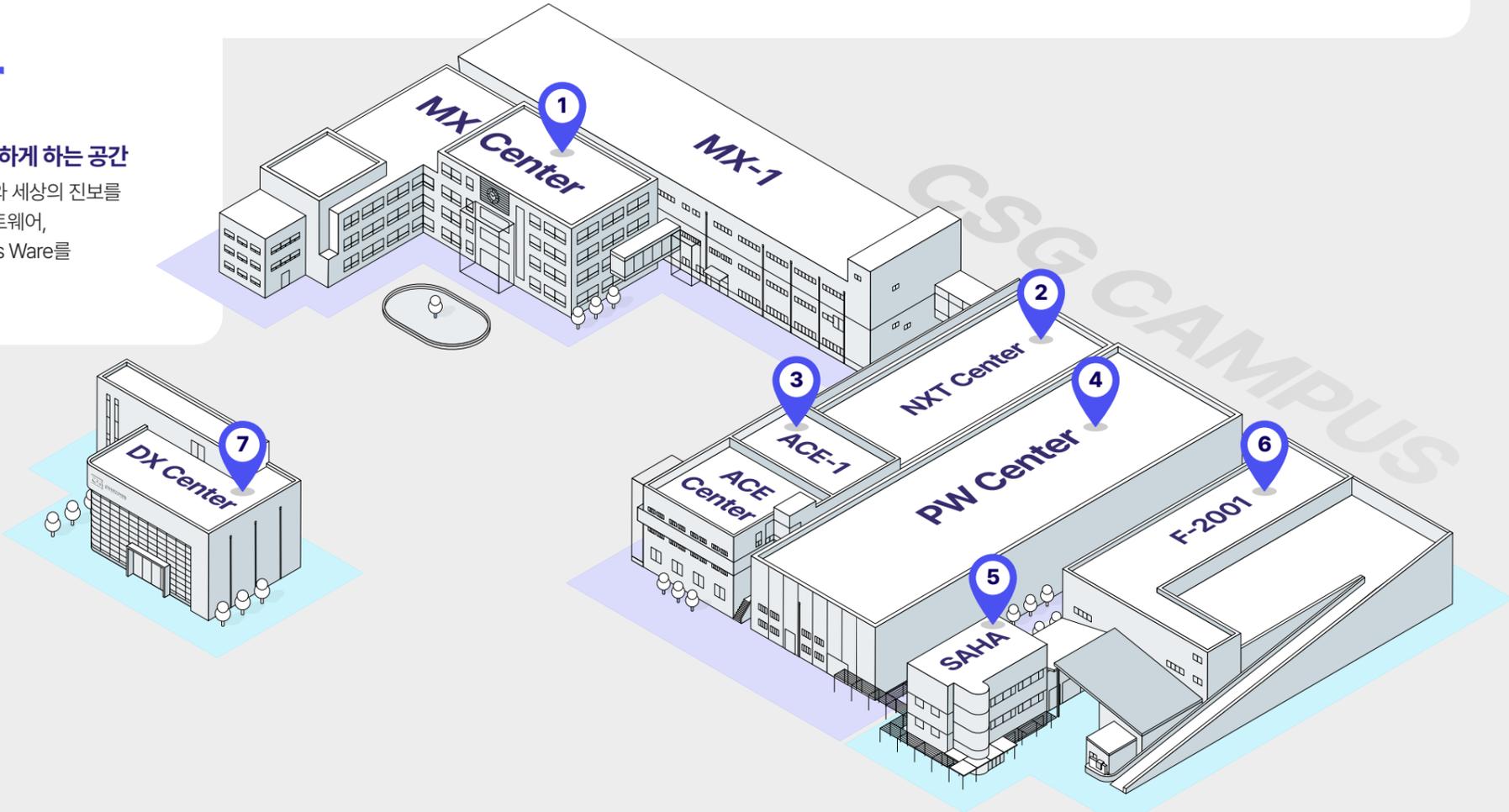
④ PW Center

Progress Ware

인류와 세상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

창신의 사명을 바탕으로, 인류와 세상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아우르는 Progress Ware를 창조하는 공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42



HQ

- A동 → MX Center
- B동 → NXT Center
- C동 → ACE Center
- D동 → PW Center

(구)창신정밀

- 사무동 → SAHA
- 공장동 → F-2001

C2.0 신사옥

DX Center

⑦ DX Center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제조의 흐름을 이끄는 공간

디지털 전환 전략을 통해 단순 신발 제조를 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로 미래 제조의 새로운 흐름과 표준을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번영로 64

⑤ SAHA

사하

지리적 기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공간

부산 사하구라는 창신의 지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의 장입니다.

⑥ F-2001

Factory 2001

창신의 신발 금형 제작이 시작된 공간

F는 Factory를 의미하며, 창신이 2001년 자체 기술로 신발 금형 제작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곳으로, 금형 기술의 독립과 발전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70번길 18

TALK²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